

# 순천시 “쓰레기장 인근 주민에 月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발생·수집·처리 등 폐기물 해결 패러다임 전환 모색

2026년 조성 클린업환경센터 주민에 전폭적 인센티브  
2030년까지 발생량 20% 감량·재활용 분리축진 운동

순천시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건립을 추진 중인 쓰레기 처리시설 인근 주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시장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쓰레기 처리 해결에만 국한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발생과 배출, 수집·운반, 처리 과정 모든 단계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다”고 폐기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순천시는 발생단계에서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생활 쓰레기 20%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발생 및 배출 단계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룬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음식폐기물 개별계량기를 100% 확대 설치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는 50%까지 보급한다.

또 조례개정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폐기물처리의 주민부담률을 현실적으로 상향 추진하면서, 재활용 분리축진 운동 등 다양한 시책도 전개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집·운반단계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입찰참여업체를 확대하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수집·운반단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존의 문전 수거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 수거 방식을 정착하기 위해 동지역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재활용 도움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했다.

현재 읍면지역 일부에서 시행 중인 클린하우스를

47곳에서 2025년까지 150곳으로 확대해 도심 빌라 및 농어촌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개선할 계획이다.

허 시장은 특히 “오는 2026년 들어설 클린업환경센터 인근 주민들을 위해 거리에 따라 가구당 월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가구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마을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 마을 발전을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경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최첨단 시설로 시민의 감시하에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시는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용량이 한계에 이르자 쓰레기 소각장과 재활용시설을 갖춘 클린업 환경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다.

임지선정위원회는 최근 주암면 자원순환센터 부지와 월등면, 서면 2곳 등 모두 4곳을 선정했으나 해당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올해 임지가 선정되면 국비 등 1200억원을 투입해 2023년 착공해 2026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순천에서는 하루 190t의 폐기물을 왕조동 쓰레기 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해왔다.

지난달 19일 자원순환센터에서 불이 나 가동이 멈춘데다 왕조동 매립장의 사용 연한도 2년밖에 남지 않았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허석 순천시장이 지난 15일 폐기물 정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대통령이 반한 쌀 ‘곡성 백세미’ 상한가

친환경 유기농 우렁이농법 생산  
지난해 35억 매출 전년비 75% ↑  
백세미 누룽지 미 ‘아마존’ 론칭

곡성군은 지역 명품 브랜드 쌀이자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인 ‘백세미’의 지난해 매출이 35억원을 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백세미는 해마다 ‘완판 신화’를 이어가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19년 매출액 2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목표인 30억원을 훌쩍 넘어 35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75%배 수치상승했다. 올해는 이보다 10억원이 많은 45억원이 매출 목표다.

백세미는 친환경 유기농 우렁이농법으로 생산되며 누룽지향이 가득한 특색 쌀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백세미를 구입한 후 ‘대통령이 구입한 쌀’로 인지도를 높였다. 5월 가정의 달에는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백세 효잔치 이벤트 등을 추진하면서 이름을 더욱 널리 알렸다.

‘전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면서 전국 유명 백화점과 타워팰리스 SSG 도곡점에



입점하는 쾌거를 이뤘다. 백세미의 거침없는 인기는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시장인 아마존에 백세미 누룽지를 론칭한 것이다.

가구 구조변화에 따른 상품군 다양화도 진행 중이다. 올해는 3.1kg와 8.15kg의 새로운 포장단위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애국가케링’의 하나로 3:1절과 8:15 광복절에 맞춰 포장단위를 새롭게 선보이는 것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앞으로 백세미가 세계적인 명품 농산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광양 명품 ‘백운산 고로쇠’ 20일부터 출하

위생 관리·점검 강화 소비자 신뢰 확보 총력

광양의 특산품인 ‘백운산 고로쇠 수액’이 오는 20일부터 출하를 시작해 3월20일까지 채취·판매가 이뤄진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백운산 고로쇠 수액은 전국에서 최초로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됐다. 인체에 유익한 무기질이 다양 함유됐으며 게르마늄 성분이 많아 성인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에 탁월한 효능이 알려졌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액 명성 유지를 위해 정제과정을 거친 수액만을 시중에 유통 판매도록 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쉽게 고로쇠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 용기를 도입했다.

지난해 340여 농가가 97만 l의 고로쇠를 채취해 33억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 올해 판매 가격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앞서 광양 고로쇠 채취 농가들은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수액 용기에 정제일자 표기, 지리적 표시 이력이 포함된 QR코드를 삽입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다.

올해는 전남도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고로쇠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광양시와 서울대 학술림,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농조합법인인 합동으로 고로쇠 채취 전 위생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고로쇠 수액을 위생적으로 채취함과 동시에 산림생태환경 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섬진강 수해참사 수개월...원인 조사 본격화

수해원인조사협, 용역 착수 보고...정부·지자체 등 참여  
피해 주민 “100% 배상·수해 방지 항구 대책 마련돼야”

지난해 8월 구례-곡성을 휩쓸었던 섬진강 수해 참사에 대한 원인 조사가 본격화된다.

17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구례읍 다목적체육관에서 ‘섬진강유역 담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 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는 섬진강댐 정부-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 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또 전남도와 전북도, 경남도 등 광역지자체와 구례군, 곡성군, 순천시, 광양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하동군 등 기초지자체에서 참관했다.

이들은 조사협의회의 구성 및 용역을 통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며 조사용역팀 결정에 따른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토목설계 전문업체에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협의회의 참가인 전문가들과 민간단체들은 향후 배상을 전제하고 정확한 원인 분석과 공정한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댐 홍수 조절 수위를 높게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댐 관리 규정과 운영이 적절했는지, 지점별 침수 빈도와 수위 측량 자료가 있는지 등을 밝히고 모형실험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원인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배상도 없는 실정인데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이 구례군민대책본부 집행총괄 공동대표는 “전 재산과 생계를 위한 터전을 잃고 빚을 내 복구한 피해 주민들의 속원은 오직 잘못도 없이 속절없이 당한 피해의 100% 보상과 수해참사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라며 “용역을 통해 조사를 시작한 만큼 주민의 한을 풀고 원만한 배상이 이뤄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수해 원인을 찾는 투명한 조사를 해 명명백백하게 무엇이 문제였지는 밝혀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수개월 간 고통을 받고 있음을 헤아려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서둘러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료를 성실히 공개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용역 조사 기간은 오는 6월까지지만 더 조속히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